

공약사업	지방도918호선 창수령(자라목재) 터널 설치 임기후 장기사업					
사업목적	• 도로의 급경사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 • 경북북부 내륙 연결도로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					
담당부서	안전재난 건설과장	박 현 규 (730-6330)	토 목 담 당	강 관 홍 (730~6334)	실무관	차 재 호 (730-6454)
협조부서	-			이 행 룰	80% (임기내 계획기준)	
사업개요	위 치	영덕군 창수면 창구리~영양군 영양읍 무창리				
	사 업 량	도로개선 L=2.13km				
	주요내용	영덕구간 : 터널(2개소) 1.03km				
추진실적/ 실천계획 (‘14~‘18년)	~‘15년	• 기본계획 수립,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				
	‘16년	• 민선6기 공약이행 실천계획 조정(‘16. 11월) ※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민배심원제 운영 •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				
	‘17년	• 실시설계용역 및 지적측량 완료, 보상계획 공고				
	‘18년	보상협의 및 공사추진 임기내 계획				
	임기 후	공사준공				
예산계획 (억원)	계	~‘15년	‘16년	‘17년	‘18년	임기후
	292			5	15	272
	국비					
	도비	292		5	15	272
	군비					
	기타					

사업효과 (문제점)	• 전액 도비부담 사업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
확장방안 (개선방안)	• 지속적인 경상북도 방문 건의로 사업의 조기준공 추진

□ 추진상황

경향신문

영양~영덕간 자라목재(창수령) 뚫린다...내년 하반기쯤 착공

기사입력 2016-03-01 11:0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

공감

1

요약본

가

가

가

경북 영덕과 영양을 잇는 고개인 자라목재(창수령)에 터널이 뚫린다.

경북도는 영덕군과 영양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자라목재에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.

자라목재는 영덕군과 영양군을 연결하는 해발 700m의 고갯길로 영양·봉화 등 내륙지역 주민들이 동해안으로, 영덕 북부지역 주민들이 내륙으로 갈 때 주로 이용한다.

